

# 김영록 전남지사 “한반도 빼닮은 영산강 느리지 명품관광지화”

### 우수 흐름따라 형성...매년 관광객 발길 이어져

### 나주 동강면·무안 몽탄면 방문·적극 지원 약속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반도 지형을 빼닮은 '영산강 느리지'를 명품관광지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느리지는 물길이 흐르면서 모래가 쌓여 길게 늘어진 모양을 표현한 순우리말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나주 동강면과 무안 몽탄면에 있는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리지 전막대를 방문, 나주시와 무안군의 관광지원 개발 현황을 살피고 명품 관광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나주의 최명수·이재태 전남도의원, 무

안의 나광국·정길수 전남도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임성환 나주시의원, 이호성 무안군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했다.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리지는 유수의 흐름에 따라 형성됐다. 한반도 형상과 매우 유사해 매년 사진을 찍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2019년 '영산강 느리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2023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

고 2024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쉼터, 산책로, 주차장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2021년 '영산강 관광 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을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 36억원을 들여 조망쉼터, 탐방로, 꽃단지, 한반도 지형 상세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시·군의 사업이 준공되는 2025년부터는 한반도 지형 느리지 관광지가 지역의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나주시와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지형 느리지 관광지원 개발사업을 응원단체부터 심도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반도를 빼닮은 나주 영산강 느리지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 전남 해양 생태 음식 활용 관광상품 개발 눈길

### 관광두레·창업지원·청춘어람 등 관광사업체 육성 성과 공유회

전남도는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관광두레, 창업지원, 청춘어람 육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2022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는 전남도가 육성한 관광두레 25개 사업체, 창업기업 13개소, 청년기획자 5명과 일반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자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우수 사례 발표, 인증서 교환을 통한 협력의 장으로 진행했다.

'같이'의 가치를 더하는 두레·창업·청춘 함께 모이장(長)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지난해 '관광두레·스타트업 간부대이 페스타'에 이어 청춘어람 사업으로 양산한 섬·해양 관광 전문 청년 관광기획자까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양·생태·음식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도전과 열정으로 창업에 뛰어든 관광 스타트업,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관광 기획자들은 직접 개발·

제작한 80여 상품을 한자리에 전시하며,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가감없이 뽐냈다.

미식 공간은 ▲여수와 수제맥주 ▲고흥 수제 유자콜라 ▲나주 절리산 수제 양갱 ▲광양 봄 매실차 ▲구례 지리산 수제 양갱 ▲강진쌀로 만든 빵과 마카롱 등 35개 식음 제품을 선보여, 참가자가 식음과 함께 담소를 나누도록 구성했다.

체험존은 ▲국내 1호 발마사지사 김수자 교수의 녹차 발마사지 ▲종가집 중부가 대접하는 죽로차와 다식 ▲사진 찍기 좋은 포토스팟 추천 어플 ▲페플라스틱 병뚜껑 업사이클링 체험 ▲레트로카메라로 만드는 예술 작품 체험, 5개 상품을 소개해 체험 참가자들로 붐볐다.

또한 ▲유자캔들 ▲레진 공예품 ▲고인돌 찻잔 ▲나무공예품 ▲친환경 어머니티 패키지 ▲다육화분 ▲홍도 등대 발광다이오드(LED) 등 40여 다양한 관광 상품이 곳곳에 전시돼 참가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주시, 자율차 운영 차별성 공인...정부 평가 '우수'

###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첫 평가 호평 기술 개발·실증 자율주행 체감도 향상

광주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평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며, 앞으로 매년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광주시는 특장차를 이용한 차별성, 다른 지역에서는 부족한 실증데이터 수집, 안전 관리 프로세스 구축, 통신 인프라 실험검증 노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평동산단·수완지구 일원에서 무인 지속특장차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했다. 올

해 6월에 빛그린산단, 첨단2지구, 평동역~어등대로-영광로(14.2km) 구간을 추가로 지정받았다.

추가 지정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2024년까지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증과 기술 개발과 기술 실증사업을 통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 '영어방송, 외국어방송 뭐가 맞지' 광주 GFN 명칭 딜레마

### 직역하면 '광주외국어방송'...실제 중국어, 베트남 프로그램도



"외국어방송국인데 왜 '영어방송'이라 부르지?" 광주영어방송 라디오 채널을 즐겨 듣는다는 동남아 출신 A씨와 영어권 호주에서 온 B씨의 공통된 질문이다. 방송 중간중간 흘러나오는 'GFN'은

Gwangju Foreign language Network의 이니셜로, 직역하는 '광주외국어방송국(망)'이다.

그러나 해당 방송국의 공식명칭은 '(재)광주영어방송'. 광주시가 출연한 19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시는 매년 20억 원 안팎을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명칭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선 '그럴싸한 헛갈림'이다. 더욱이 간판은 영어방송이지만 하루 2시간씩 중국어, 주말 4시간 베트남어 프로그램에 할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어방송이 더 어울린다.

광주지역 등록 외국인 중 베트남과 중국이 1, 2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우즈베크,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태국, 러시아 순이고,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최다 10위권 밖이고, 영어권 인구를 모두 합쳐도 2000명이 채 안돼 베트남의 3분의 1, 중국의 2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명칭을 두고는 방송국 스스로도 딜레마다. 국적별 외국인 비율이나 다문화시대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설립 취지에 비춰보면 외국어방송이 맞는 표현이지만, 절차 등이 발목을 잡아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의 까다로운 변경 승인을 거쳐야 하고, 조례 개정도 집이지만 14년째 익숙한 명칭을 바꿔야 하고, 각종 안내판과 서류, 인터넷망, 뉴미디어 플랫폼도 죄다 손질해야 하고 상당한 재정적 부담까지 불가피해서다.

김재환 기자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탄인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1분기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1.1배
4분기	125,531원	1.7배	1.7배
3분기	79,147원	2.1배	2.1배
2분기	48,103원	2.7배	2.7배
1분기 저소득층	26,697원	5.3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